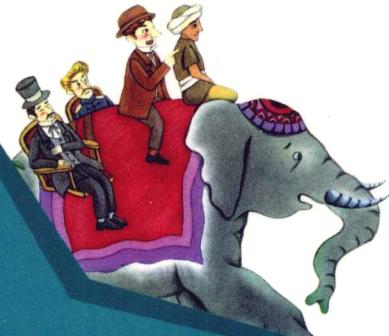




本丛书荣获“韩国儿童文学振兴会推荐图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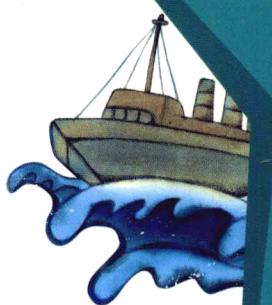
凿壁者 韩文版必读世界名著



八十天环游地球

80일간의
세계일주

[韩]赵玉南 译
肖伟山 注



北京外国语大学等九所高校韩语系教师联袂推荐，遴选最受
韩国人欢迎的世界名著韩文译本。

多所北京著名高校韩语系大学生通读并划出生词，由权威专
家、教授作注。



赠送120分钟
高清朗读光盘



中国宇航出版社

版权所有 侵权必究

80 일 간의 세계 일주 / 八十天环游地球

Copyright © 2009 by Jigyungsa Ltd., Publishers

All rights reserved.

Original Korean edition was published by 2009 by Jigyungsa Ltd., Publishers

Original Korean Copyright in china © 2010 by China Astronautic Publishing House

Original Korean Copyright in china arranged with 2010 by Jigyungsa Ltd., Publishers
through AnyCraft-HUB Corp., Seoul, Korea & Beijing Kareka Consultation Center,
Beijing, China.

本书韩文版由著作权人授权中国宇航出版社独家出版发行，未经出版者书面许可，不得以任何方式抄袭、复制或节录本书中的任何部分。

本书版权登记号：图字：01-2010-7095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八十天环游地球：朝鲜文 / (韩) 赵玉南编译；肖伟山注释。
—北京：中国宇航出版社，2011.1

(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

ISBN 978-7-80218-881-5

I . ①八… II . ①赵… ②肖… III . ①朝鲜语－语言读物

②科学幻想小说－法国－近代 IV . ①H559.4：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253108号

策划编辑 于慧 插画设计 金于经
责任编辑 朴春姬 责任校对 于慧

出版 中 国 宇 航 出 版 社

发 行 北京市阜成路8号 邮 编 100830
(010)68768548

网 址 www.caphbook.com/www.caphbook.com.cn

经 销 新华书店
发行部 (010)68371900 (010)88530478(传真)
(010)68768541 (010)68767294(传真)

零售店 读者服务部 北京宇航文苑
(010)68371105 (010)62529336

承 印 三河市君旺印装厂
版 次 2011年1月第1版 2011年1月第1次印刷
规 格 787×960 开 本 1/16
印 张 13.5 字 数 135千字
书 号 ISBN 978-7-80218-881-5
定 价 26.80元 (随书附赠MP3光盘)

本书如有印装质量问题，可与发行部联系调换

“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编委会

主 编 徐永彬（对外经济贸易大学）

执行主编 崔有学（中央民族大学）

编 委（以下按汉语拼音顺序）

蔡柯欣（北京语言文化大学）

崔鹤松（中央民族大学）

崔荣根（北方工业大学）

李丽秋（北京外国语大学）

金海鹰（中国人民大学）

金英玉（北京第二外国语学院）

金振杰（北京第二外国语学院）

南燕（北京大学）

权震红（北京联合大学）

孙鹤云（中国传媒大学）

孙玉霞（北京第二外国语学院）

肖伟山（北京大学）

杨磊（北京第二外国语学院）

郑梅（中国传媒大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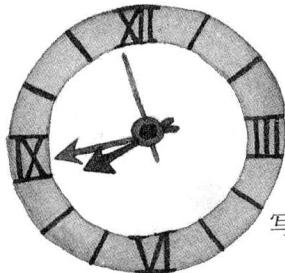
感谢以下同学为本丛书选注生词

北京外国语大学 赵海川 康建业 上官玉莹 燕飞飞 段依依 张帆

北京语言文化大学 李翔 贾志杭 袁宇 李雪 陆冰儿 郑欣宇 王康

中国传媒大学 王逸





从经典中获取文化力量

写在《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出版之际

徐永彬

改革开放后，中韩文化交流是中国对外文化交流中最活跃的组成部分之一。有关于朝韩语言文化的出版物，坊间所见，以教材居多，学习辅助读物也多以美文编选的方式，出版的品类和方式相对单一。作为活跃在小语种出版前沿的宇航社近年来推出了不少有关韩语文化、阅读、学习类的出版物，为推动韩语出版繁荣，推动韩语文化出版作出了应有的贡献。

“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是宇航社奉献给广大韩语学习者的一道阅读大餐。据宇航社的策划编辑透露，丛书立意于对韩国人从小必读的世界名著进行精选，遵循以下三个原则：一是韩国最好的名家译本或改写本；二是在韩国受欢迎的必读名著，即销售很好，得到大众认同；三是出版机构要在韩国有一定的文化地位。遵循这些原则，编辑们从韩国知耕社挑选出了曾经获得韩国儿童文学振兴会选定推荐的优秀读物。第1辑共计6本。

当在北京的九所高校的朝韩现代文学的教授、博士们都次第被邀请到宇航社之后我们才知道，宇航社在引进版权后已经在几个高校的学生中就这套丛书的出版风格、生词遴选、体例设计等诸多方面进行了数轮调研。而老师们被邀请来对这套丛书挑毛病、提建议、并担纲编委，其中部分编委被邀请参加第1辑的生词注释工作。

在编委的讨论会上，宇航社提出了要变小语种为多语种的出版思路，并且突出强调了在未来职业生涯中，作为以语言为专业的工作者不应仅仅只是掌握翻译的实用技巧，还要从文化与思维的角度形成对语言文化的深入理解，以此提升职业的文化素养。听到这些主张，对于我这样的教育工作者来说是非常振奋的。我个人认为，教育与出版都是有益世道人心的人文化成。朝韩文化与中国文化之间还有着很多的富矿值得挖掘。

就“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的出版而言，我个人觉得，它对我们广大的读者来说，至少具有以下几个方面的积极意义：

首先是所遴选的名著多为我们中国人所熟悉的，这就为读者提供了理解的基础。而品读名家对这些名著的译解，使我们能更多地活学活用韩语。英语、汉语、韩语的思维方式的差异会让我们在学习中获得多文化的视角。



其次，读名著学语言是语言学习的最便捷也是最有效的方式。读本国名著当然不可或缺，但世界名著有着更为开阔的文化背景。一个能用韩文解读或者讲述世界名著的学习者，必然会增加自己的语言功底。

最后，这是一套为初学者量身定做的韩文版的世界名著，在韩国很是畅销，是诸多社团和大学的推荐读物。中国读者初学者居多，请初学者将有理解障碍的生词挑出来，又有在一线的韩语老师作注解，相信能成为广大韩语爱好者非常实用的学习读本。

丛书取名为“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取意中国古代读书人凿壁偷光的故事，蕴含着从各国文化中撷取精华，从经典中获取文化力量的含义。我以为，对于我们今天的中韩文化交流，是一个美好的期待。

是为序！

（作者系对外经济贸易大学外语学院副院长、“凿壁者丛书·韩文版必读世界名著”主编）



등장인물



필리에스 포그

무뚝뚝해 보일 정도로 침착한 성격이지만 용감하고 도전하기 좋아하며 의리 있는 사람이다. 전형적인 영국 신사로 혁신 클럽의 회원이라는 것 외에는 사생활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클럽 동료들과 2 만 파운드를 걸고 80 일 간 세계 일주에 도전한다.



아우다 부인

파시족의 인도인으로 뛰어난 미인. 영국식 교육을 받아 우아하고, 교양 있는 부인이다. 분델칸트 지방의 왕과 억지로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는 바람에 수티의 제물로 희생될 뻔하지만 포그와 파스파르투의 활약으로 목숨을 구한다.



장 패스파르투

파리의 토박이. 누구에게나 호감가는 둥근 얼굴로 착하고, 순수하며, 용감하지만 약간은 덜렁대는 성격이다.

포그의 새 하인이 되자마자 포그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하게 된다.

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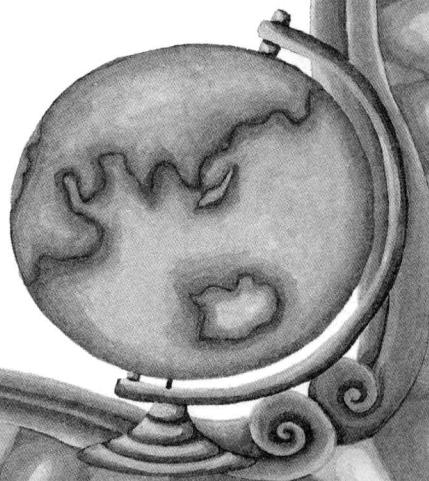
포그를 은행 강도로 착각하고 뒤쫓는 형사. 몸집이 작고 야원 남자로 날카로운 인상이지만 형사로서 끈질기게 범인을 추격하는 강한 책임감을 가졌다.



혁신 클럽 회원들

기사 앤드류 스튜어트, 은행가 존 설리번과 사무엘 포랜틴, 양조업자 토마스 페르너건, 잉글랜드 은행 이사인 고티에 랠프. 모두 사회에 큰 힘이 되는 주요 인물들로 클럽 안팎에서 이름이 쟁쟁한 사람들이며 혁신 클럽의 회원들이다.

포그와 세계 일주 내기를 하게 된다.



차 례

새 하인	파스파르트	Z
거액의 내기		10
피스 행사의 추억		20
승려들에게 뜻기는	파스파르트	38
아우다 부인	그출 작전	48
불잡한 일행		80
랭군호에서		90
피스의 꿈에 빠진	파스파르트	100
프포오를 헤치고		113
다시 만난	파스파르트	120

꼬여진 나	다리	134
인디언의 나	습격	146
쓰매를 나	타고	156
포그의 나	배짜	166
포그의 나	파산	182
세계 나	일주에서 얻은 나	190

跟名著面对面！ 200

作者生平简介 202



凿壁者丛书
韩文版必读世界名著

八十天环游地球

80일간의
環球一周

〈韩〉赵玉南
肖伟山



中国宇航出版社
·北京·

새 하인 파스파르투



클럽[名]俱乐部

훌륭하다[形]出色

틀림없다[形]确

实,毋庸置疑的

1872년, 영국 런던의 새빌로우가에 필리어스 포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혁신 클럽의 회원인 포그는 분명 훌륭한 신사였으나, 포그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포그는 틀림없는 영국 사람이었지만 런던 토박이는 아니었다. 증권 거래소에도, 은행에도 그 밖의 어떤 상점이나 관공서에도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었다. 정치가도, 법조인도 아니었으며 제조업자도, 실업가도, 농사꾼도 아니었다. 또한 학교나 학원 단체에도, 연구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혁신 클럽의 회원





일 뿐이었다.

포그가 혁신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어링 형제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발행한 수표는 즉시 그의 예금 계좌에서 지불되어 확고한 신용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포그가 어떻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포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신문을 보거나 카드놀이를 하면서 보냈다. 카드놀이를 할 때면 종종 이겼지만 딴 돈은 모두 자선 단체에 기부했다. 포그가 내기를 하는 것은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기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포그에게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다. 친척도 없으며 친구도 없었다. 다만 하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시중을 들어 주었다.

포그의 생활 태도는 너무나 성실했으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규칙적이었다. 포그는 언제나 똑같은 시간에 클럽에 와서 지정석에 앉아 식사를 했다. 아무도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고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는 법도 없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중

베어링[名] (人名) 巴林

계좌[名] 账户

종종[副] 经常, 常常

상상하다[他动] 想像

뜻밖[名] 意外, 出乎意料

엄격하다[形]严格

드는 사람도 무척 편하였다. 그러나 포그는 단 한 사람뿐인 하인에게는 아주 엄격했다.

무릎[名]膝盖

포그는 그 단 하나뿐인 하인, 제임스 포스터마저 10월 2일에 해고했다. 그 이유는 화씨 86도로 정해 놓은 면도용 물을 84도로 데워 왔기 때문이었다.

그 날 아침, 포그는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양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몸을 똑바로 세우고 고개를 들어 벽시계의 바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임스의 후임으로 올 하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척척[副]顺利地,

顺当地, 麻利地

고용하다[他动]雇用

“새 하인이 왔습니다.”

서른 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젊은이가 제임스의 뒤를 따라 들어와서 인사를 했다.

“자네는 프랑스 사람이지? 이름이 존이라고 하던가?”

포그가 물었다.

“장이라고 합니다. 별명은 장 파스파르투지요. 무슨 일이든 척척 잘 해치운다고 해서 그렇게들 부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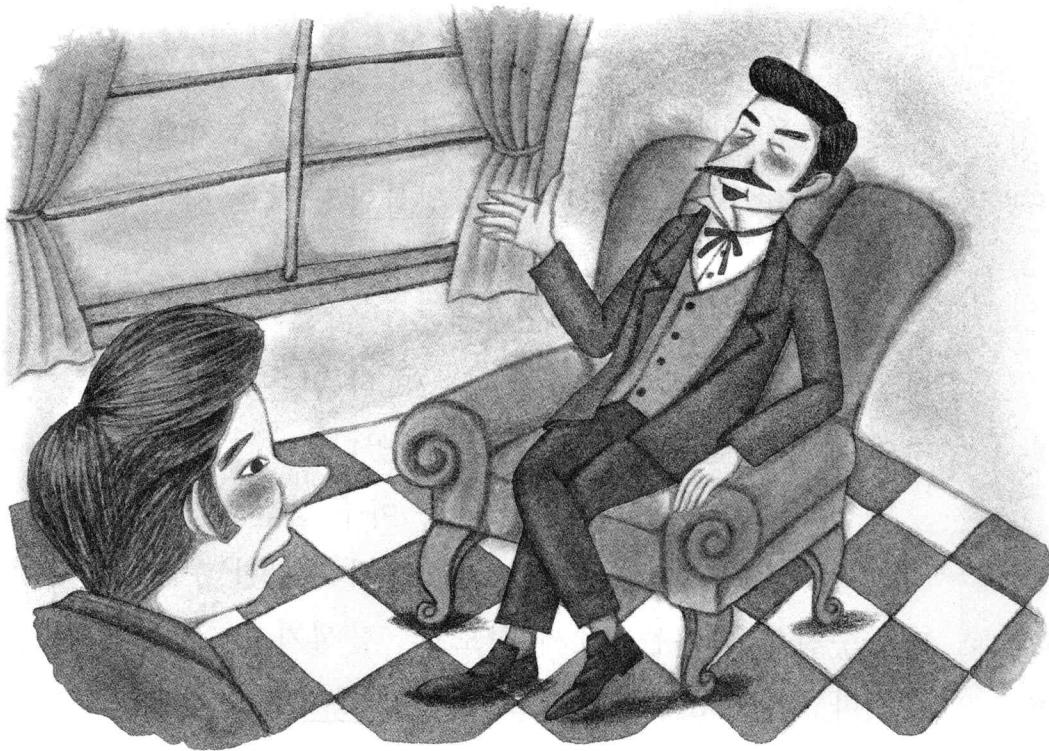
새로 온 남자가 말했다.

“난 파스파르투라는 별명이 마음에 들었네. 고용하기로 하지. 고용 조건은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좋아, 그런데 지금 몇 시지?”





“11 시 22 분입니다.”

파스파르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은시계를
꺼내 보고 대답했다.

“자네 시계는 늦군.”

포그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네 시계는 4 분 늦네. 그건 아무래도 좋아. 늦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럼, 지금부터 즉 1872년 10 월 2 일 수요일 오전 11 시 26 분부터 자네는 내 하인이 되었네.”

조끼[名]坎肩, 背心

덧붙이다[他动]补充

살찌다[自动]长

肉, 变胖

반듯하다[形]端

正, 平正

여유만만하다[形]

十分悠闲, 悠

然自得

흐르러지다[自动]

散乱

포그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왼손으로 모자를 집어 머리에 쓰고는 한 마디 말도 덧붙이지 않은 채 집을 나섰다.

파스파르투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두 번 들었다. 한 번은 새 주인이 나갈 때, 또 한 번은 그의 전임자인 제임스 포스터가 집을 떠날 때였다.

파스파르투가 포그를 만난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앞으로 모실 새 주인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주인의 나이는 40 세 정도로, 잘생기고, 자상해 보였다. 키는 큰 편이고, 조금 살이 쪘지만 보기 싫지 않은 정도였다. 머리와 수염은 갈색이었고, 반듯한 이마에는 작은 주름 하나 없었다. 하얀 치아가 가지런했으며 얼굴은 창백한 편이었다. 태도는 침착했고, 눈빛은 맑고 눈동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침착한 영국 신사의 전형이었다.

포그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으며 항상 여유만만했다. 언제나 수학적인 정확함으로 동작이나 걸음걸이를 조정했다. 또 항상 가까운 길로 다녔기 때문에 서둘러 걷는 일도 없고, 할 일 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일 따위의 쓸데없는 짓도 하지 않았다. 그가 감동하여 태도가 흐트러지는 걸 본 사람도 없었다. 포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가장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새로 고용된 파스파르투는 순수한 파리 토박이로 5년 전에 영국으로 건너왔다. 마음씨가 상냥하고 겸손하였으며 누가 보아도 호감이 가는 둥근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혈색이 좋은 얼굴에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으로 단련한 듯 골격이 단단하며, 가슴이 넓고 건강하여 힘이 아주 좋았다.

어쨌든 그는 젊은 시절의 방랑을 끝내고 이제는 한군데 자리를 잡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 파스파르투는 영국 신사에 관해 칭찬하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곳 런던으로 건너왔지만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기분파거나, 변덕쟁이거나, 놀기만 하거나 아니면 여행만 하는 사람들이어서 파스파르투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포그가 하인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게 된 것이다.

혼자 남게 된 파스파르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집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집 안은 깔끔하고 청결했으며 일하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3층에서 앞으로

토박이[名]本地人

골격[名]骨骼

방랑[名]流浪, 漂泊

기분파[名]情绪化

的人

깔끔하다[形]干净

만족스럽다[形]满

意, 满足